

MyCaps

#모두를위한 #너의곁엔 #길거리엔

@eslow

[침묵으로 죽어가는 대한민국] 사고나도 방관… 공동체의식 ‘뒷걸음질’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2017년 04월 25일 화요일 제6면 승인시간 : 2017년 04월 24일 19시 26분



지면보기 폰트 + - ☰ ☰ ☰

中.투명인간으로 사라진 이들

심정지 기사 놀둔채 자리뜨고
아동학대 목격해도 신고안해
상황해결 대신 무관심 대처
“누군가 대신 신고” 인식 만연
적극 참여 보장할 제도 필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돋지 않고 방관하는 ‘무관심병’은 결국 참담한 결과로 이어진다.

지나체 그자스러 시저지로 사고를 내 태시기사로 낫드고 자리로 떠나 스개드으 으리사

회!

왜 우리는 길거리에 나서는 걸 두려워할까요?

노구더나 피애 흘다.. 고깊의 죽앵노 콧 혀 썩아는 사님..

2018.10.30. 08:38

[스토리세계-불의에 눈 감은 시민들①] 방관하는 시민 모두가 공모자

“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몇 명인데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늦은 밤 아파트에 둘러싸인 공터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을 목격한 사람은 한둘이 아니지만 주민들은 모두 경찰 수사 앞에 입을 다물었다. 자기 가족에게 해가 갈까, 집값이 떨어질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영화 <목격자>는 이처럼 불의를 보고도 묵과하는 시민의 행태를 중심으로 스토리를 풀어나간다.



◆본 사람은 있으나 신고는 '0'... "사마리아인은 없다"

방관하는 시민들의 이야기는 영화 속에만 있는 게 아니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애인 택배기사가 폭행당했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택배기사는 다른 장애인 택배기사를 밭로 차고 뺨을 때리며 무참히 폭행했다. 대낮 길거리에서 피해자는 방어조차 못 한 채 한참을 맞았지만 이를 제지하는 시민은 한 명도 없었다. 모두 힐끗거리며 두 사람을 지나쳐갈 뿐이었다. 해당 영상을 올린 게시자도 영상을 찍는 내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도 한 예다. 여중생이 또래 후배 여중생을 ‘건방지다’는 이유로 1시간 반 동안 폭행하고 ‘인증샷’까지 남겨 논란이 됐던 사건이다. 당시 피해자가 끌려가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보면 사건 주변에 목격자와 순찰차까지 있었지만 단 한 차례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



뉴스 2015년 04월 09일 17시 16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4월 09일 17시 17분 KST

교통사고 피해자 외면했는데 알고보니 어머니

정주호 기자
연합뉴스



연합뉴스

혹시 여러분은 걱정되지 않나요?

"왜 쳐다봐" 길거리 폭행 피해자 8일 만에 숨져

송고시간 | 2015-06-01 11:14

f t , ... | + -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길에서 쳐다봤다는 이유로 20대 2명에게 폭행을 당한 30대 남성이 뇌사 상태에 빠진 지 8일 만에 끝내 숨졌다.

1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전 4시 40분께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일행과 함께 걸어가던 A(31)씨가 김모(23)씨 등 2명에게 폭행을 당했다.

20대 정신질환자 수원 길거리서 80대 할머니 '묻지마 폭행'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 노출승인 2018.12.30 | 댓글 0

수원에서 20대 정신질환자가 80대 할머니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10시30분께 수원 권선동 한 사거리 인근에서 20대 남성 A씨가 80대 여성 B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 상해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이 출동할 당시 B씨는 의식이 흔미한 상태로 바닥에 누워 있었으며 좌측 얼굴과 양측 손등 등에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때 A씨 역시 현장에 함께 있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초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A씨도 병원에 응급입원, 조치가 끝나는 대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사법처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저작권자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여러분의 부모님, 여자친구, 남자친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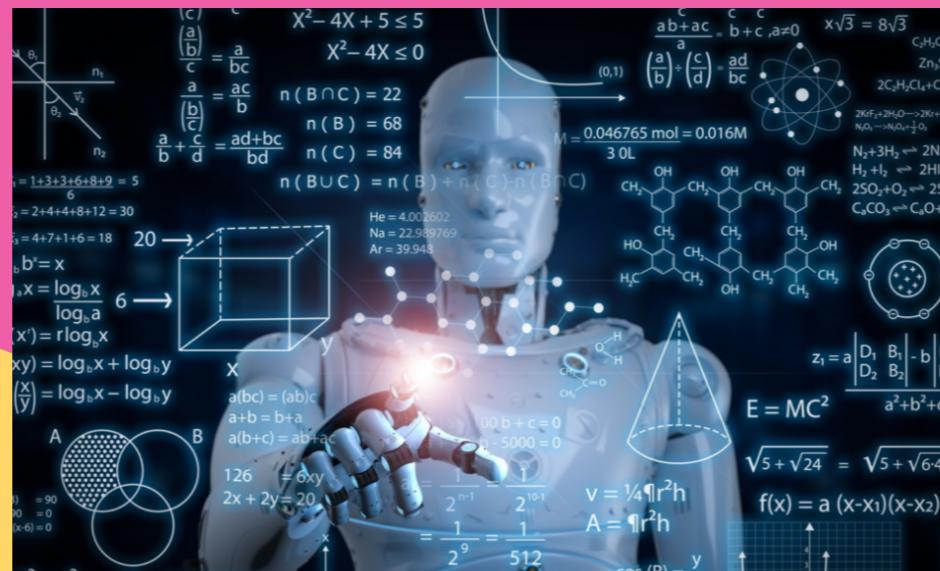
바로, MyCaps



인공지능이 가진 직관

1. 목표(Goal)가 분명하고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정적이다.
2. 매 순간 선택할 수 있는 행동/선택의 종류(Move)가 유한하게 정해져 있다.
3. 매 순간 자신이 목표에 얼마나 근접했는지를 알 수 있다.(내가 한 선택의 피드백이 빨리 주어진다).
4. 주로 단한 시스템(즉, 예상 못 한 외부 요소가 갑자기 들어오지 않는) 속에서 일한다.
5. 과거의 선택과 결과에 대한 구조화된 기록이 많다.

“함께 자라기” - 김창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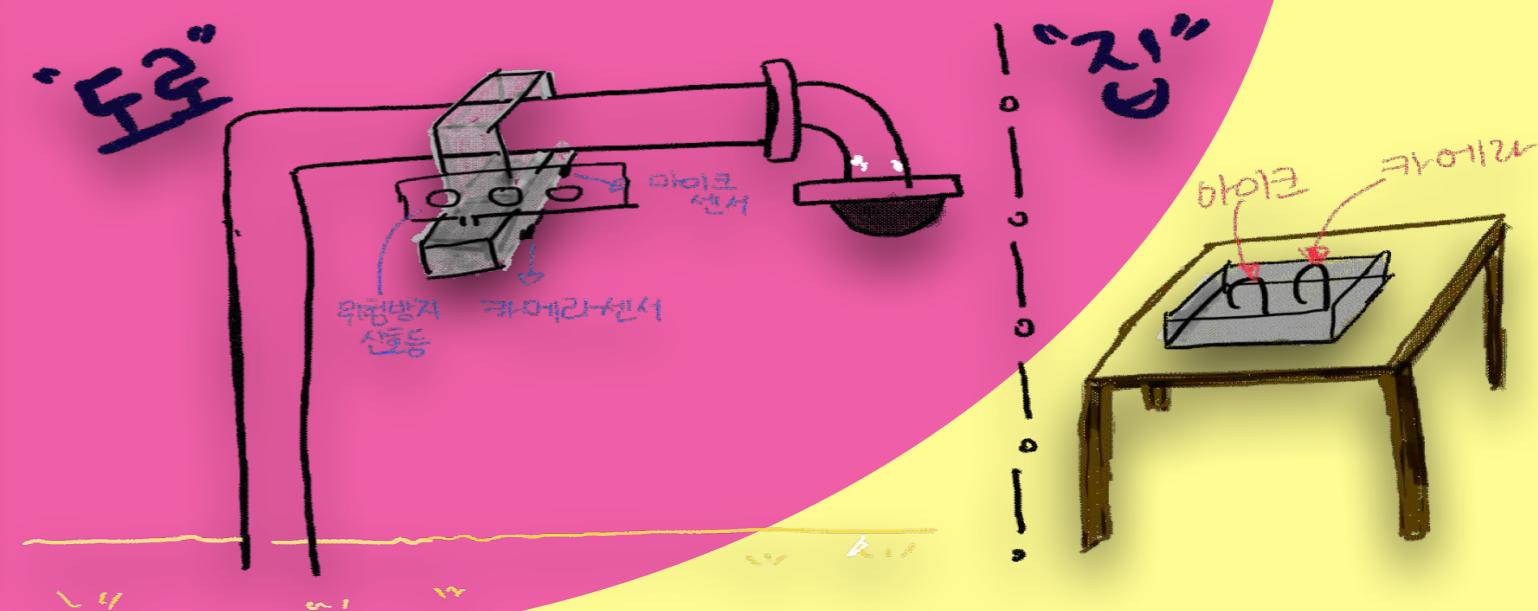
2억 들인 스마트 가로등, 본전 뽑으려면 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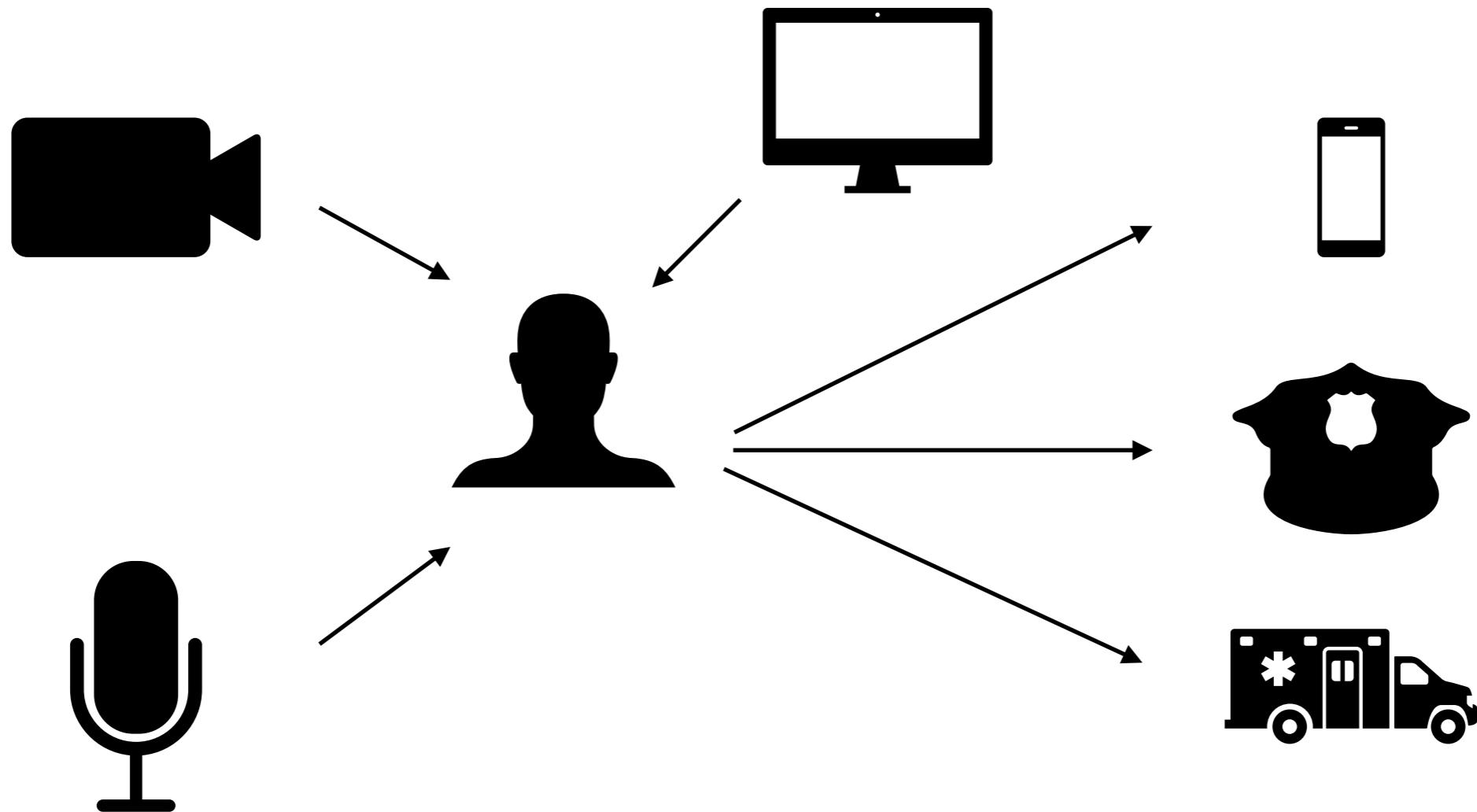
조선일보 | 구본우 기자

입력 2018.08.02 03:00

서울시, 통일로 등 가로등 368개에 車 감지하면 켜지는 센서 달았지만 통행량 많은 곳 설치해 효과 미미
연간 전기료 절감 180만원 그쳐

지난 29일 밤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에는 도로를 따라 가로등 100여 개가 줄지어 있었다. 이곳의 가로등은 여느 가로등보다 '똑똑하다'. 전기료를 줄여준다는 '스마트 조명 제어장치'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차가 다가오면 밝아지고, 지나가면 어두워지도록 설계됐다. 그만큼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했다. 스마트 제어 장치 설치비는 대당 54만 원. 그러나 전기료 절감 효과는 대당 연간 2500~5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빨라도 108년이 걸린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전시성 사업에 시민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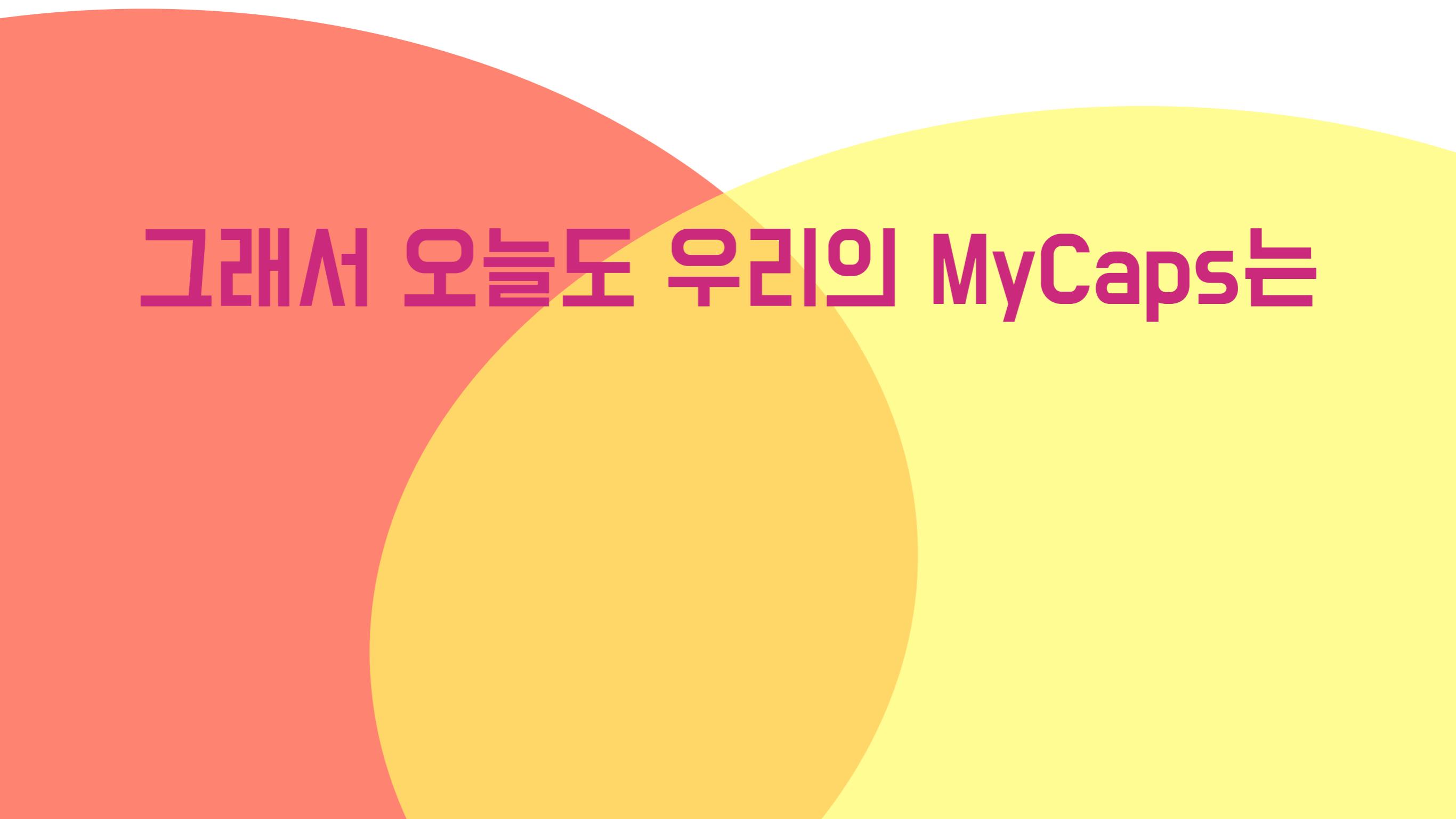
그러나 MyCaps가 더욱 나아가야 할 길은...

유관기관과의 협력

특정 사용자에 특화된 사용자 지정 모델

상황분석에 용이한 감정분석

더욱 정교한 상황 분석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MyCaps는

잡았다 요놈

